

# INTERVIEW



##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터뷰

“

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각자의 소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”

### Q.1 전국의 방재인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

- 제14호 태풍 텐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까지 연이어 큰 규모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. 양식어장이나 과수농가, 노후주택 등에 안타까운 피해가 많았습니다.
- 올 한해는 봄 가뭄에 이어 장마철 집중호우, 그리고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까지, 기후변화시대에 걸맞게 큰 규모의 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한국방재협회 산하 많은 방재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. 저희 공사를 비롯한 관련

기관은 물론, 전 국민이 합심해서 또 다시 다가올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.

- 저희 공사는 전국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9만9천km의 용배수로와 3,356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농어촌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위해 6천여 임직원이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농어촌의 재해예방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**Q.2**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 받은 일등 공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농어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.

- 우리 농어촌은 빈번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점차 확대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야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
-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
- 따라서 저희 공사는 FTA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농업생산기반정비와 해외농업개발, 어촌개발사업,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, 수자원관리 시스템의 전문화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,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.
- 또한 올해 중점을 둔 해외사업은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고,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2030 농지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.
-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 공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. 장기적으로도 농어촌에 필요한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.

**Q.3** 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역할은 어떤 것이며, 재난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?

- 공사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가뭄 시에는 긴급 용수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농어민의 안정영농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
- 공사는 평상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·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- 풍수해 등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비상대처훈련을

실시하고 있으며,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조직과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전부터 사전대책회의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며,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주요 저수지, 방조제의 사전방류를 실시하는 등 재해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公社 주요시설인 저수지 및 방조제 484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 만에 하나 있을 재해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

**Q.4**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국가방재의 역할이 크게 높아져서 정부에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.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인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사전예방 등의 추진실적과 향후방향 그리고 농어촌 수리시설의 정비계획은 무엇인가요?

- 우리공사는 농작물 침수방지, 재해사전예방 등의 재해경감책의 일환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배수개선사업에서 공사는 상습침수대상지조사, 기본조사, 세부설계 및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.
- 상습침수농경지 232천ha 중 '11년까지 153천ha(66%)가 완료되었고, '12년 현재 102지구 25천h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향후 상습침수농경지 54천ha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'12년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정하고,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또한 올 한해 동안 3,7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와 양배수장, 용배수로의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.
- 천재(天災)는 있더라도 인재(人災)는 없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다가올 재해에도 농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.

**Q.5**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에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여 물 그릇을 확대하는 등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요?

- 맞습니다.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넓은 지역을 수몰시켜야 하는 대규모 댐, 저수지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따라서,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저수지의 독을 높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저수지 독 높이기는 용수가 부족하거나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의 독을 5~15m이상 높여 담수량을

향상시키고 재해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약 2억 8천만 톤의 저수량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.

- 지난 봄 가뭄 때도 뚝 높이가 완공된 저수지에서는 가뭄 피해가 없었고, 저수율도 평균 45%이상을 유지하는 등 담수량도 여유가 있었죠.
- 총 110개 지구 중 올해 안에 80지구를 완료하고 2013년까지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

**Q.6** 기후변화 대비 재해극복을 위해 사장님께서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에 기대하시는 바램은 무엇 인지요?

- 최근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재난관리시스템, 유관기관 및 전 국민참여를 통한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정부는 재난관리시스템과 예산을 지원하고, 유관기관은 재난관리체계를 효율적, 능동적으로 강화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또한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신기술, 신공법 등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재난대처 기술향상에 기여 하며, 특히 재난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육성 교육·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.

**Q.7** 마지막으로, 사장님께서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방재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?

-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강도가 심화되어 피해규모 증가하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
-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각자의 소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- 또한, 그 동안 일선 현장에서 재해예방과 재해복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방재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